

'NS 푸드페스타' 성공 다져

익산시, 9월 최대규모 K-푸드축제 실무회의 개최

익산시가 오는 9월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 K-푸드축제인 NS 푸드페스타 성공 개최를 위한 연석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2일 팔봉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참여업체 4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는 익산시와 유관 기관으로 나누어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했다.

우선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NS홈쇼핑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이어 시가 행사지원 설명회를 하며 세부 역할에 관한 업무 협의를 했다. 식품을

주제로 한 행사가 이색적인 만큼 참석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NS 푸드페스타는 오는 9월 15~16일 양일간 합영읍 소재 제4산업단지 내 하립퍼스트치킨에서 개최된다. 익산시에서는 행사지원을 맡아 NS홈쇼핑, 유관 기관과 참여업체 간의 중간 조정을 통한 양방향 소통 역할을 책임진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전국요리경연회를 비롯해 라면요리왕, 쿠팡플레이스, 식품컨퍼런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을 위한 익산 데굴데굴집, 익산 특산품, 하립그룹 제



품 시식 및 판매존 등도 구성되어 있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NS 푸드페스타는 익산시의 식품산업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홍보와 체험,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행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익산시, 원광대 캠퍼스·원광보건대 캠퍼스 총 7개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지난 7월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광대학교 지정 시범사업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7개 강좌로 모집인원은 105명이며, 신청접수는 8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원광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디지털 리터러리 유튜브를 위한 영상제작 △영화로 만나는 삶의 인문학 △백세시대 건강관리 △반려동물 라이프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원광보건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순결이 아름다운 익산시민 △나를 발전시키는 문화관광 △자세, 바르게 운동하자 등 3개 강좌

가 개설된다.

특히, 각 캠퍼스별 학습메니저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신입생 모집, 학사관리, 학습이력, 경력관리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울러 대학교수 등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 광주 공동워크숍...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광주 주얼리사업단 20여명 익산시 방문... 혁신·기업 성장지원 공동협력사업 모색

익산시는 22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패션산업 시험연구원과 광주 주얼리사업단(단장 주성민)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주얼리산업 혁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익산시·광주 동구청·패션산

업시험연구원·광주 주얼리사업단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에는 광주 주얼리사업단 소속 대학교수 및 연구원들과 패션산업 시험연구원, 익산시청 관계자, 광주 동구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 특강, 기업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익산 측의 '익산시 주얼리 클러스터 및 공동혁신활동 추진현

황'과 광주 측의 '주얼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익산주얼리체인(대표 구자원)을 방문, 실버주얼리 제품 생산 공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 동구청과 함께 주얼리산업의 혁신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워크숍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3년 친환경 인증 기본교육 추진

군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인증 기본교육을 추진하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을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은 온라인상에서 농업교육포털(<https://agridu.net>)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령농가를 위해 시 농업기술

지역 소식통

군산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지관을 거점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간여행 마을 내 주민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축제는 26일 오후 2시부터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상영과 체험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이 운영되며, 오후 7시부터는 초원사지관 리뉴얼 오픈식과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영화제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하진호 감독이 촬영 당시 콘티와 비공개 스틸컷을 군산시에 기증해 이번 축제 때 그 부분이 전시될 예정으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소년 전통 문화예술제'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관내 청소년 및 시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통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진포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군산시 청소년 전통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매년 공모를 통해 열리는 축제로 크게 음악 부문, 무용 부문, 사물놀이 부문, 문학 부문으로 나뉘어져 올해는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지역 내 우수 청소년들이 참여해 사물놀이, 가야금, 대금 연주, 민요 및 관현악 등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많은 관람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즐기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술아, 놀자' 성료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선보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술아, 놀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었으며, 문화소의 계층 아동과 가족을 포함해 전체 관람인원 240명(120명/일)을 전석 무료로 진행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실제로 예약 오픈 한 시간 만에 240

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공연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관람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익산시립합창단이 '여악기 연주'와 '가족노래 메들리'로 즐거움을 선사했고, 2부에서는 무용단의 태평연

화와 신강강술래, 풍물단의 '농악놀이' 등으로 관객들의 흥을 더했다.

특히, 무대 위에 객석을 설치하여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교감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함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무대 위에 만들어진 객석에서 출연진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나도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만끽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특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이 2023년 정규 3기 프로그램을 오는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규 3기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학습 수요와 희망강좌 등을 선별해 개설했으며 총 52개, 669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교양 명화 테라피 등 12개 강좌, 문화예술 여행 드로잉 등 13개 강좌, IT 스마트폰으로 작품사진 촬영 등 2개 강좌, 생활문화 캘리그라피와 수제장 등 5개 강좌,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 이야기' 등 12개 강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